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8. 20.(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8월 20일(목)부터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담당자	박용민 전문위원(044-300-7440)
			김빛나 주무관(044-300-7443)

세종시의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기기센터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 장애아동 · 가족이 체감할 실질적 지원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9일 16시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기기센터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광역 단위 거점기관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통합 운영에 따른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세종보조기기센터 이전 대책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됐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명숙, 박범중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세종보조기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숙 의원은 “세종시는 영유아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센터 개소가 늦어지더라도 기존 기관 간 연계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범종 의원은 “센터 신규 설치와 공간 재배치,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아동 지원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공간 재배치를 통한 세종보조기기센터 이전 필요성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차질없는 신규 설치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효율적 통합 운영, 보조기기센터 이전을 통한 이용자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장애인 자립 지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논의까지 연이어 진행하며 장애인 복지 분야 핵심 현안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